

SCAN ME



QR을 스캔하시면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등 사보 참여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풍족함은 다채롭게,
부족함은 자기계발의
원동력으로
하루하루 진취적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동경하는 초월적인
판타지 하나쯤 품고 살아간다.
내 마음속 완벽 그 자체.
대상의 완벽함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완벽한 대상을 떠올리며 나아가다 보니 벽에 부딪히기도,
한 발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멀어지는 듯하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고
되지 않는 것에 힘들어할 순 없지 않은가.

썩썩하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 막막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구르고 밀려 뽀족하고 모난 것들도
둥그러지고, 새로이 깎아 올려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만의, 나만의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육각형인간 ▼

이상적인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2024 JAN+FEB Vol. 480

우리만의 육각형을
만들어보자고요!

통권 480호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4년 1월 25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인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4-5
신년사

6-7
특 맛보기
‘나의 육각형’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

8-11
통통튀는 특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잘 하고 있는데!

12-13
통하는 이야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14-15
마음고민 상담소
자신의 완벽주의 욕구를
점검해 보세요

16-19
E&C ON
우리는 E&C 엔지니어해커스

20-23
우리 동호회 어때?
설렘 가득한 청춘
열정 vs 열정



24-29
가족의 기록
사랑과 감사가
드리운 풍경

30-33
클래스북
지극히 주관적인 향수도 만들고,
추억도 쌓고

34-37
한기 트래블러
몽쳐야 찬다?
아니, 몽쳐야 탄다!

38-41
함께해요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누군가의 발은 안전하게

42-43
힘하게
우리 동네가
로컬 힙플레이스

44-45
E&C 뉴스

46
독자마당





사랑하는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는 푸른 용이 큰 뜻을 품고 하늘로 오르듯, 그동안 애써온 많은 일들에 값진 성취와 결실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2023년은 우리가 재도약의 자신감을 되찾은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10여 년 만에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전년에 비해 더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 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시대에,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모두 자신감을

넘어 회사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 16일 비전선포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야 할 역점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사 존립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원전 책임설계기관으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준비해 온 것들을 집대성한 법제화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 역할에 대한 법제화는 단순히 안정적인 매출확보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향후 또 다른 정책변화가 우리를 흔드는 경우에도 한국전력기술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더욱이 원전 책임설계기관으로의 지위 확보는 원자력기술의 핵심인 ‘안전성’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준비하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발판을 마련해 온 만큼,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시장의 확보입니다.

신한울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코 장밋빛 미래를 꿈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한울3,4호기 이후 불투명한 신규원전 계획과 언젠가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전력시장의 성장한계를 냉정히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팀 코리아(Team-Korea) 내에서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일원으로서 주어지는 과실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팀 코리아가 아닌 한국전력기술이 주도하는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UAE LTEA, ITER와 같은 기존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신규사업 확보와 함께 미국·유럽 등 신규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조만간 설립될 미국지사와 더불어 중동, 유럽 등 5개 권역에 설립된 해외지사의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여 현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내 설계 협력사 및 기기공급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그 누구도 이권을 제시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순수 한국형 원자료를 개발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함과 동시에 회사 존립의 의미를 확고히 하고, 더불어 우리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 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기술 고유화와 함께 새로운 업역 개척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주력해야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엔지니어링 자산의 디지털화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선진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개선을 계기로 경영전반의 프로세스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실제 사용자인 직원 여러분 각각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의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비전선포식을 통해 노사가 함께 회사의 미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와 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개개인의 의견에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일하기 좋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터였습니다. 따라서 R&D센터,

복합연수원 등과 같은 회사와 직원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때로는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전력기술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국전력기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가슴이 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옛 선인의 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당나라 임제선사의 어록 중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처지)에 있어도 주관을 잃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랴’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주인의식이 사라진 집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리막의 길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큰 배를 함께 탄 선주(船主)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잊지 않고 대처해 나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마음가짐으로 뜻을 모아 전진할 때, 앞으로 30년, 50년을 넘어 100년도 거뜬한 한국전력기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소망하는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2
사장 김성암

‘나의 육각형’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갖춘 이른바 ‘육각형 인간’이 MZ세대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들 중 일부는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기도 하지만, 진취적인 MZ세대는 자신만의 육각형을 설정하고 이를 가득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현실 속으로 들어온

육각형 그래프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육각형 그래프와 맞닥뜨린다. 각 꼭짓점에 힘·민첩성·체력·지력 등 캐릭터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붙인 뒤 현재 능력치에 맞춰 점을 찍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면 다채로운 다각형이 완성되는데, 이를 통해 캐릭터 간 능력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 다각형의 모양이 가득 찬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춘 소위 ‘완성형 캐릭터’로 평가받는다.

여러 콘텐츠에서 육각형 그래프를 자주 접해 온 MZ세대는 이를 현실로 소환했다. 게임과 달리 현실의 육각형 그래프의 각 꼭짓점에는 외모·학력·재산·직업·집안·성격·특기 등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이 붙는다. 이 육각형을 가득 채웠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며, MZ세대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열띤 호응을 보내고 실제로 몇몇 것들을 따라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육각형 그래프의 항목에 학력·재산·직업 등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덕목뿐만 아니라 집안·외모 등 자발적 선택이 불가능한 요소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선천적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인물들의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스토리’에 열광하던 과거와 달리, MZ세대는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성취를 이룬 동시에 집안·외모 등도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폭넓은 비교로 부푼

욕망의 크기



MZ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높은 경제적 수준과 좋은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자존감 교육도 충분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꿈꾸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래의 삶을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동네·학교 등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친구들 정도가 비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하는 전 세계 또래와 나를 비교한다. 극도로 정체된 삶의

단편만을 보여주는 SNS 속에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음을 뽐내는 게시물이 가득하다.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자칫 자신의 삶이 남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행복과 성공의 기준 또한 아득하게 멀어질 수 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주장대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면, 전 세계에서 잘나가는 또래들의 SNS를 엿보며 욕망의 크기를 키운 MZ세대는 도리어 그 욕망 때문에 불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육각형인간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풀어 오른 꿈과 욕망을 좌절의 재료가 아닌 자기 계발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SNS 속의 판타지적 요소가 듬뿍 섞인 육각형인간이 아닌 나만의 육각형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육각형 인간에

‘나’를 더하다



게임 속 캐릭터의 딱 찬 육각형 그래프는 게임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SNS 속 인물들의 육각형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일상의 극히 일부분을 선별해 내보임으로써 육각형인간으로 불리게 됐을 뿐, 이들 또한 SNS 밖에서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와 마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삶은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육각형인간의 정의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집안·외모 등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육각형 그래프에서 과감하게 빼고, 그 자리에 내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 등을 넣으면 그 자체로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된다. 사랑·친환경·우정 등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과 세계관에 꼭 맞춘 육각형 그래프를 만들고 채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발전적인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허망한 꿈과 무력감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둘 중 어떤 방향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육각형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새해를 맞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E&C**



조직에서 그 누구보다 새해 각오를 굳건히 다지는 사람, '한국전력기술 육각형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 바로 누굴까? 신입사원이 아닐까 싶다. 한국전력기술인이 되기 위해 앞서 길을 걸어온 선배를 동경하고 따르며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신입사원 세 사람을 만났다.

글. 김민선 사진. 조병우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잘 하고 있는데!

원자력기술실 주민석, 구조부지기술실 신채연, 전기기술실 김혜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석 안녕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재밌게 사는 것이 목표인 원자력기술실 인허가팀 주민석입니다.

신채연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 한국전력기술의 긍정왕 신채연입니다.

김혜연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중 가장 잘 웃는 전기기술실 가동원전팀 김혜연입니다.

Q 이제 어느덧 1년 차가 되었어요. 지난해 한국전력기술인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김혜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한 해였어요. 사회인이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더라고요.

신채연 30년 동안 재직하시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분야에서 오래 일하시는 선배님들이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주민석 저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에 대한 욕심과 세심함을 더 챙기다 보니 워라밸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아 고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밸런스를 다시 찾아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Q 새해 다짐도 궁금해요

신채연 경제적인 부분과 독서에 대한 실천 목표를 다짐했어요. 가계부를 적으면서 지출을 가능해 보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운동을 하며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혜연 저도 운동을 꼭 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목표입니다.

주민석 작년에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급급했는데 새해에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거예요.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다짐은 이 목표들을 지키기 위한 것 일테고요.

Q 육각형인간 구성 요소가 저마다 다른데요. 한국전력기술인의 육각형인간은 어떤 6개의 요소로 이뤄질까요?

주민석 책임감, 끈기, 전문성, 스트레스 관리, 자기 계발,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삶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기술인으로서 '통련'하려면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66

신입에만 머물러있지 않기 위해,
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
고군분투 중입니다.

99

Hexagonal
Human



김혜연 저도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 능력, 전문성, 끈기, 책임감, 건강을 꼽았어요. 주만석 사원님과 다른 점은 대인관계능력인데, 저는 외부 업체 등과 소통할 일이 많거든요. 업무적인 전문성까지 고려한다면 소통만큼 문제해결 능력도 갖춰야 하죠.

신채연 동기라 그런가 생각하는 요소가 거의 비슷하네요. 다른 요소가 있다면, 저는 스트레스와 건강 관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Q 각자 꼽은 구성 요소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채연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저만의 신조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스트레스를 풀 취미가 다양하게 있어요. 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하고 싶어요.

김혜연 맞아요. 신채연 사원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항상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이라 부러워요. 저는 끈기에서만 그 누구보다 자신있어요. 한번 끝내고자 마음먹으면 끝까지 버티는 편입니다. 업무에 있어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는데 이런 모습을 선배님들도 예뻐게 봐주신 것 같아요.

주만석 저 또한 끈기와 짝을 이루는 책임감이 제 강점이에요. 맡은 것에 대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주리더', '주회장'이에요. 이 정도면 책임감이 강점이라고 자랑해도 손색 없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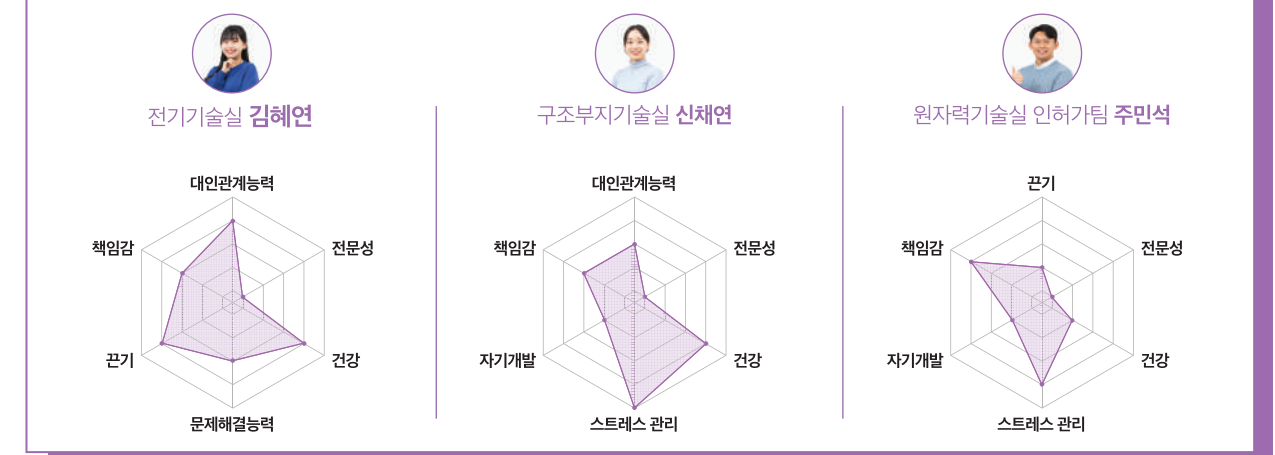
Q 반대로 보완해야 할 점은요?

김혜연 전문성이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만큼 배움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씩 보완하다 보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만석 저도 전문성입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입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 고군분투 중입니다. 여기에 훌륭한 멘토 선배님께 도움을 받고 있고 이 밖에도 좋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언제나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저도 금세 신입사원 티를 벗어날 수 있겠죠?

신채연 전문성이나 건강관리, 자기 계발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제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목표 외에 더 해 나가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아직은 계획이고요. 목표는 크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E&C**

신입사원이 생각하는 한국전력기술인의 육각형 그리고 나의 그래프는?



한국전력기술은
조직생활과 조직사회화를 돕는
리더십 교육을 운영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된
리더십 교육을 통해 개인은 물론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 모멘텀을 향한
균형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한국전력기술의 비전을
오늘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사람 같은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불안하거나 힘이 듭니다.**



**사회적 완벽주의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안을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칭찬도 받고
잘 해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계획한 것만큼
뒷받침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더라도 개인적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 것에
속상함이 큼니다. 때론
노력만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그런
결과조차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목표를 낮게 설정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걸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유혜리 HR커뮤니케이션 대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하고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 《잠깐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요》에서 그녀는 스트레스와
관계 다루기에 대해 강조한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완벽
주의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근 우리 사회는 완벽해 보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때로는 활력을, 때
로는 실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육각형인간 트렌드(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를 보더라
도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벽 추구는 열정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완벽함의 추구로 절망감
의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이나 조직 모두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과관리 시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는 목표를 조금 내려놓고 빠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목표
를 수정하고 성찰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
러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발전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 결과에 대한 완
벽함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세운 목표가 나 자신에 대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보
여주기 위한,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목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
요. 만약 후자의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질문자님께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며, 자신감 저하를 가져오
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도 이와 같은 경험으로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의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세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토대로 한 지향점을 설계해
보세요. 이 작업을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한다면 개인의 성과 창출
은 물론 업무적인 목표 달성에도 분명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께서는 이미 노력하는 자세와 열정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진정 원하는 이상적인 목표 달성에 사회적 완벽함이 아닌 자신의
존재, 나다움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후 개인과 조직의 업무적 목표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보신다면 질문
자님 스스로 내면의 단단함과 더불어 행복감이 더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C**

우리는

E&C 엔지니어해커스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제11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서 한국전력기술 해커동호회 ‘엔지니어해커스’가 제어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정보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다. 끊임없는 탐구와 끈끈한 팀워크, 부단한 노력과 거침없는 도전정신으로 최정상을 꿈꾸는 수상자들을 만나본다.
정리. 양지에 사진. 한상훈



66

네 명 모두 각자 전문분야가 달라 서로 실력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99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 쾌거

2023년 7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제11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무자의 사이버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서는 제어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공공기관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서도 제어와 정보분야로 나누어 양일간 대회를 진행했다. 한국전력기술 직원들도 올해 대회에 참가하여 제어분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전력기술은 사내 해커동호회 엔지니어해커스라는 팀을 만들어 4년 전부터 ‘산업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제10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서 정보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제어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다.

“정보보안 스페셜리스트인 한윤희 부장님의 주도 아래 엔지니어해커스라는 사내 해커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처음에 3명으로 시작하였는데 보안팀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단순히 보안에 대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자 해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ICT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여 최리훈 차장님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네 명 모두 각자 전문 분야가 달라 서로 실력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해커스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차장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김정호, 박라현, 이천우, 최리훈



66

전력 복구를 하는 미션이나, 긴급 제동 패킷 공격을 받아 긴급 제동한 기차를 패킷 분석 후 MITM을 통해 다시 정상 운행 시키는 미션을 주는 거죠. 몇 시간씩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99



모의 해킹으로 실력 겨뤄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는 정보분야와 제어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보분야는 참가 제한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보(I)’ 분야와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보(II)’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는 정보(I)분야에 14개 팀이, 정보(II)분야에는 13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어분야에는 11개 팀이 참가했다.

“발전소가 해킹당하거나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질적인 침해사고 분석과 대응능력을 알아보는 문항이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관리시스템이 공격받아 정전된 상황을 모의상황으로 제시하고 정전된 도시의 전력을 복구하는 미션이나, 해킹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기차의 패킷을 분석해서 기차를 정상 운행시키는 미션을 주는 거죠. 몇 시간씩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박라현 정보보안실 사원은 대회 당시를 떠올리며 설명했다.

내년에는 우승을 기대하며

얼핏 보기에 사이버보안 경진대회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분야의 장비나 시스템을 알게 되어 회사업무도 훨씬 수월해졌다. 특히 해킹 대회에서 사용한 툴이 기관의 자체 취약점을 점검하는 데 쓰일 수 있어 보안 점검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사용한 툴을 이용하여 사내 모의 해킹 점검을 할 예정이다.

“모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독학으로 공부해 여기까지 온 거라 무척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보보안실 이천우 사원의 이야기에서 팀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다.

엔지니어해커스는 이미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결심을 하고 있다. “장려상만 두 번 수상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2등을 넘어 1등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 최리훈 ICT혁신실 차장이 말했다.

“엔지니어해커스에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팀을 결성하셨던 한윤희 부장님, 개인적인 일정으로 올해 참여하지 못한 주민수 사원, 함께 응원해 주고 배려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대회에 수상하기까지 격려와 지원해 주신 정보보안실과 ICT혁신실 두 부서의 팀원분들과 팀, 실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C

66

대회에 수상하기까지 격려와 지원해주신 정보보안실과 ICT혁신실 두 부서의 팀원분들과 팀, 실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9



밴드 음악을 통해 보여주는

설렘 가득한 청춘 ✨

열정 vs 열정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관객들과 호흡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6인조 밴드 A2F 멤버들의 시간은 늘 음악과 함께였다. 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달라도 좋아하는 마음, 연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동색이다. 열정 대 열정. 음악에서만큼 뜨겁지 않은 멤버가 없다.

글: 정임경 사진: 홍덕선



한국전력기술 직장인 밴드 A2F

A2F의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이들의 실력, 이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에너지를 알 것이다. 청춘이라는 단어 그 자체다. 직장인 밴드라기보다 대학생 밴드가 더 어울릴법한 이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

2024년 시점, A2F는 남자 보컬 김정수 대리, 여자 보컬 정민정 사원 그리고 드러머 유인화 사원, 키보드 전한나 사원, 베이스 장강재 사원, 일렉트릭 기타 김지훈 사원으로 구성됐다. 사실 A2F는 기타회에 속한 밴드로 용인 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 있는 밴드다.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늘 있었다. 한때 본사 이전과 드러머 부재로 활동이 뜸했지만, 6년 전 드러머 유인화 사원의 등장으로 A2F는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었다. 지금의 여섯 멤버로 완전체를 이룬 것은 일 년 전이다.

“저를 비롯해 유인화 사원, 김지훈 사원은 2019년 첫 정기 공연을 잊지 못해요. 점심시간 사내에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많은 임직원분이 보러 오셨거든요. 그날의 함성, 분위기, 떨림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웃음)”라는 김정수 대리는 회사 다니며 못해볼 경험이라고 했다.

최근 이들은 김천시의 초청을 받아 안산공원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한국전력기술이 개최한 PUB & MUSIC FESTIVAL에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A2F



각양각색의
개성이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대에 섰을 때
가장 빛이 나는
A2F 멤버들.



‘나도 가수다’라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유인화 사원은 대학생 때 드럼을 배우고 싶어
무작정 학교 밴드를 찾아갔다고. 밴드를 직접
만들 만큼 음악도, 친구도 좋아하는 장강재 사원
역시 대학생 때 베이스를 처음 접했다. 그리고
김지훈 사원은 중학생 때 처음 기타를 잡았고,
통기타며 일렉트릭 기타며 두루 섭렵해 무대
위를 누빈다. 제일 늦게 음악 활동을 했다는 전
한나 사원이 키보드 5년 차라니 이들의 실력은
굳이 보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다양한 개성만큼 다채롭게 연주해

삶에 활력을 주는 것 하나만 있어도 팍팍한 일
상이 꽤 말랑해질 수 있다. A2F 멤버들은 그 즐
거움을 밴드 활동에서 찾았다.

“음악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였잖아요. 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논하고, 함
께 연주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회사 내에서 밴
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라는 정민정 사원의 말에 연습왕 전
한나 사원이 “점심시간 짧게라도 키보드 연습
을 하고 오후 업무를 시작할 때는 일에 관한 몰
입도가 훨씬 높아요”라고 덧붙였다. 개인 연습
을 하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합을 맞추는 이들.
물론 공연이 있을 때는 점심시간, 퇴근 후를 막
론하고 더 모인다.

“멤버들의 개성, 음악적 취향이 정말 다 다르고
강해요. 대부분의 밴드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
들끼리 모이거든요. 반면 저희는 너무 다른 취
향을 지녔지만, 조금씩 그 합을 맞춰간다고 할
까요? 다양한 개성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음악
적 다채로움이 우리 밴드 음악의 장점이기도
합니다”라는 유인화 사원의 이야기다.

각양각색의 개성이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대에 섰을 때 가장 빛이 나는 A2F 멤버들.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경계도 한계도 없
는 여섯 명이 모인 만큼 성장 가능성 또한 무한
하다. 이들의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 벌써 궁금
하다. **E&C**

밴드 내 서로 다른 역할만큼이나 다양한 개성
을 지닌 A2F 멤버들. 그래서일까. 연주하고 노
래하는 곡의 스펙트럼도 넓다. 블랙핑크의 <불
놀이>와 같은 최신 아이돌 노래부터 조용필의
<단발머리> 등의 옛 노래 그리고 이무진의
<신호등>,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노래 등도 즐
겨 부른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들의 평균 나이 28세. 직장에서 또래와의 만
남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장강재 사원은 “회사
에서 만나면 또래라도 보이지 않은 선이 있는
데 함께 곡을 연주하니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
예요”라고 말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은 같아도 시작은 달랐
다. 초등학교 학예회 때 노래에 소질 있음을 깨
달은 김정수 사원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
창 시절 내내 밴드부 보컬이었다. 관객들과 함
께 무대를 즐기며 느껴온 쾌감에 마이크를 놓
을 수 없었다고. 정민정 사원 또한 초등학교 선
생님이 밴드부 보컬로 점찍었고, 중·고등학생
때는 연극, 뮤지컬 공연도 했단다. 이 정도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감사가 드러온 풍경

품질경영처 품질기술팀 박상영 부장의 가족사진

첫째의 결혼을 축하하며

글. 김주희 사진. 홍덕선

무릇 가족이란 함께 자라고 성장한다. 듄직한 청년으로 훌쩍 큰 첫째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찰칵,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더없이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는 시간이 선연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물은 이토록 무해하고 다정하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카메라 앞에 섰다.
가족이야말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나눈 사이가 아니던가.
함께 누렸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평범하고 사소한 일을
가장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해내는 마법이 펼쳐진다.
일상의 행복, 그 중심에는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는다.



"막 결혼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남편과 아내가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
핏핏한 모습을 연출하는 사이, 세 살 터울의 형제는
익살스러운 포즈로 브로맨스를 표현한다.
형제가 엄마에게 바치는 헌사를
온몸으로 표현하자 남편은 이내 가슴이 뭉클해진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 순간이다.





첫째 아들에게 부모님은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좋은 부모의 됴됨이를 보여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자란
첫째 아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한다.
결혼을 앞둔 그는 부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가족은 ‘나’를 완성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

아늑한 가정집처럼 꾸며진 스튜디오 안으로 네 사람이 들어섰다. 박상영 부장 부부와 두 자녀다. 온 식구가 함께 카메라 앞에 선 건 25여 년 만이다. 마지막 가족사진을 찍은 때는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참이다. “장남이 마음과 가치관이 잘 통하는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니 부모로서 그저 축복할 따름입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축하의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포토 라인에 선다. 번쩍이는 플래시와 셔터 소리가 낮선지 다소 어색한 표정이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보인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이 오늘의 콘셉트.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는 풍경에서 끈끈한 가족애가 감지된다. 첫째 아들이 새삼 가족의 힘을 떠올린다. “결혼하기 전에 가족사진을 부모님 선물로 드리기 위해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회사를 통해 좋은 기회가 닿았네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깊은 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세월의 굴곡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오신 어머니,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동생까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박상영 부장과 아내는 얼마 전 결혼 31주년을 맞았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자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움튼다. “가정주부와 중소기업 임원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아내는 다방면에 능력을 갖춘 팔방미인입니다. 두 아들을 사회의 동량으로 훌륭히 키워줘서 늘 고맙죠”라는 남편의 고백에 아내 또한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인 데다 정도 참 많아요. 아들처럼 친정 부모님을 챙겨줘서 감동입니다”라며 화답했다. 2025년 퇴직을 하는 박상영 부장과 아내는 제2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오랜 시간 주말부부로 지내

왔던 터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큰 다툼 없이 우애를 다져온 형제를 지켜보는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기업M&A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는 첫째와 AI 반도체설계를 연구하는 박사 과정 중인 둘째는 삶의 원동력 그 자체였다. 박상영 부장은 문득 가족이 함께한 추억도 다시 떠오른다. “가족여행으로 대만 여행을 갔는데 종일 장대비가 내리는 바람에 택시 안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기사님이 갑자기 노래방 마이크를 건네주어서 두 아들이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서 즐겁게 감상했지요. 지금도 그때 녹음한 노래를 가끔 들어봅니다(웃음). 오늘 가족사진 촬영 시간도 모두에게 즐겁고 기분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았으면 합니다.” 네 식구의 행복한 순간의 여운이 가족의 앞날에 오래도록 이어지길, 삶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E&C**



지극히 주관적인 향수에 추억 한 방울 더하기

• 경영IT지원팀 최민경·김미소 사원 •



향 좀 아는 최민경 사원과 김미소 사원이 향수 만들기에 나섰다. 시작 전부터 벌써 재미있다는 표정인 두 사람이 대구까지 특별 나들이를 떠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동기로 만났지만, 찐친 바이브를 뽐내는 두 사람의 향기로운 나들이 현장에 함께했다.

글: 정임경 사진: 홍덕선 장소협조: 오센코





향수는 때로 좋은 노래처럼 당시의 기억, 추억,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우연히 오늘의 향을 맡게 되면 이 순간의 즐거움이 떠오르지 않을까.

입사 1주년을 기념하며 조향에 나서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지만, 공방을 들어선 경영IT지원팀 최민경 사원, 사업IT지원팀 김미소 사원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오늘 향수 만들기에 참여한 계기를 입사 1년 기념 추억 만들기라고 입을 모았다.

입사 동기이면서 ICT혁신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고마움’이라며 각별함을 드러냈다. 지난 1년 ICT 혁신실의 신입사원으로 지내며 느낀 성취감과 좌절감, 즐거움과 아쉬움 등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취향 가득 채운 나만의 향수 만들기

두 사람은 향수를 좋아하는 것도 똑 닮았다. 서로의 향수 취향 또한 잘 안다. 오늘 어떤 향수를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최민경 사원이 “조금 강하면서 묵직하고 시원한 느낌의 향수를 만들어 보려고요”라고 답했다면 김미소 사원은 “산뜻하면서도 기분까지 좋아지는 향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향수 만들기는 40여 개의 향료 중 가장 좋은 향 5개 정도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평소 향수를 쓰는 만큼 향 취향도 뚜렷해서일까. 두 사람은 빠르게 좋은 향을 선택했다. 최민경 사원이 마린, 하노끼, 베어리프,

레더 등의 향료를 선택했다면 김미소 사원은 무화과, 카시스, 허브 등을 선택했다. “항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여러 개 섞으면 이상해지지 않나요?”라는 김미소 사원의 질문에 조향 수업을 진행한 오센코 대표는 좋은 질문이라며 나중에 보면 알게 된다고 웃었다.

이번에는 향을 이끌어갈 향료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극의 주연과 조연을 정하는 과정이랄까.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 낸 향수는 성공적이었다. 먼저 김미소 사원의 향수는 무화과 향이 주인공으로 과일의 달콤함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밝고 청량하며 포근한 느낌이다. 신선한 아쿠아 향이 가볍고 보송보송한 느낌이 들게 하는 데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며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 같다. 반면 최민경 사원이 만든 향수는 중성적이면서 묵직한 것이 매력이다. 바다, 강 등에서 나는 물향의 마린이 주인공이며 가죽향, 이끼향을 더해 중성적인 느낌을 살린 것. 서양배의 향이 가미되었지만, 달지 않아 남자가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묵직했다.

ChatGPT, 이름을 부탁해

두 사람의 취향을 가득 담아 만든 향수인 만큼 이름도 짓기로 했다. ICT 혁신 부서가 아니랄까 향수 이름을 ChatGPT에 맡기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김미소 사원이 다섯 가지 향료를 쓰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자 ChatGPT는 순식간에 그럴싸한 멋진 이름을 만들어 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향수 이름을 ChatGPT가 추천한 이름인 ‘고요의 바다’와 ‘섬세한 모멘트’로 정했다. 밀도 있는 시간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최민경 사원과 김미소 사원. 각자 만든 향수를 들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향수는 때로 좋은 노래처럼 당시의 기억, 추억,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우연히 오늘의 향을 맡게 되면 이 순간의 즐거움이 떠오르지 않을까. **E&C**



MINI INTERVIEW



좋은 추억으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평소 미소와 향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차이를 확인했어요.(웃음) 지난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고 생각하던 요즘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한 향수 만들기가 더 즐거웠습니다

최민경 사원을 입사 동기로 만났지만, 상상하고 든든한 언니가 생긴 거 같아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향수를 만드는 내내 즐겁고, 원하던 향을 만들어 낸 것 같아 뿌듯해요.

몽쳐야 찬다?

강예지, 권미리, 박지혜,
전유화 사원의 한라산 여행기

아니, 몽쳐야 탄다!



같은 여행지라도 언제,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한국전력기술인의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전력기술 트래블러의 가지각색 여행기를 소개합니다.

매호 특색있는 여행기를 기대해 주세요.

글 사진. 강예지, 권미리, 박지혜, 전유화 사원



‘골 차는 그녀들’의 한라산 등반기

부서도, 기수도 다르지만 축구로 공을 차며 돈독해진 우리. 어느 날, 특별한 것 없던 아침, 박지혜 사원이 문득 한라산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요동친 전유화 사원은 불도저처럼 등산을 추진했다. 원래 등산을 즐기는 권미리 사원은 흔쾌히 합류했고, 강예지 사원은 평생 산을 두 번 밖에 타보지 않은 ‘등린이’였지만, 한라산 등반과 눈꽃산행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마지막 열차에 탑승했다. 이렇게 몽친 4인방은 해발고도 1,950m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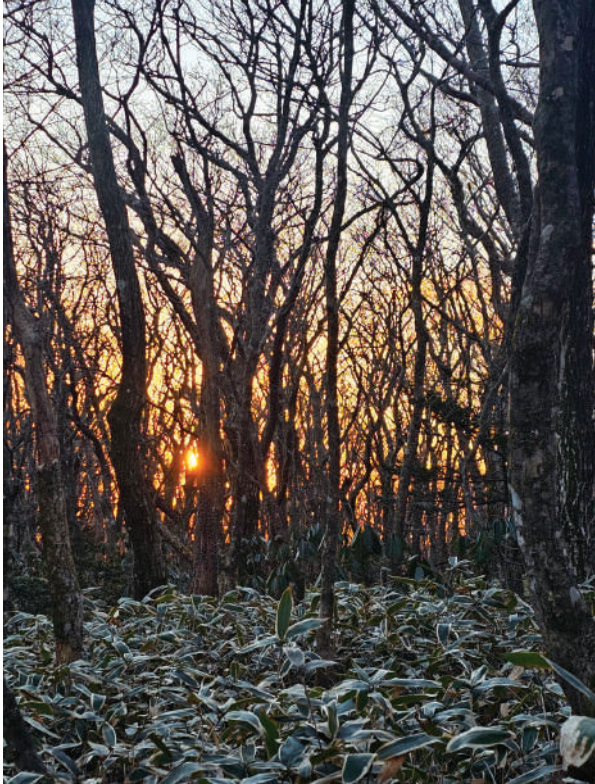
함께해서 즐거운 고행길

한라산 정상을 오르는 코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판악 코스를 선택했다. 새벽 5시 30분쯤 숙소를 나서서 6시 30분에 산행이 시작됐고,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등산로에는 한라산을 오르기 위한 등반객들로 가득했다. 사방이 컴컴한 산길을 손전등에 의지하여 일렬로 걸으며 오늘 하루 무사히 부상자 없이 등산을 끝낼 수 있기를 기도했다.

혼자 왔으면 땅만 보고 걷는 고행길이이었겠지만, 함께하는 동행과 담소도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고 서로를 응원해 주는 노래도 부르며 올라가니 시간이 금세 훌 지나갔다.

마치 좋은 패스로 골을 넣은 것 같은 기쁨을 준 한라산 등반

한라산 등산을 계획하며 나무에 눈이 예쁘게 맺힌 눈꽃 산행을 기대했었는데 아침게도 날씨가 따뜻하여 눈이 많이 녹아있었다. 하지만 고도가 올라가며 항상 기온이 낮은 구간에 다다르자 눈이 왔다가, 잠시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려 빙판이 되어버린 길이 이어졌고 아이젠 없이는 10m도 올라가기가 힘들었다. 그 길은 마치 아이스링크장이 따로 없었다. 눈이 없는 곳이라도 돌의 표면



우여곡절 약 4시간 30분을
오르고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정상은 고도가 높아서
하루 대부분 안개가
끼어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나 보다.



우리의 추억은 이렇게 쌓였다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한라산을 등반할 것이라며 엄홍길 대장의 히말라야 등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던 강예지 사원은 온갖 등산용품들을 사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하산하는 길에 무릎이 너무 아파 잘 걷지 못해 나중에 저녁 먹으러 간 식당에 등산 스틱을 짚고 입장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산행을 위해 매일 새벽에 달리기를 하며 체력을 키운 박지혜 사원도, 무릎이 아파 힘들어하면서도 내색 하지 않던 강예지 사원도, 그런 아픈 강예지 사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권미리 사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여행이었다. 산을 오르며 힘들었던 순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회사 생활에서도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사이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E&C**



Halla Mountain

한라산에서 바라본 제주 시내의 모습

이 얼음으로 뒤덮여있는 블랙아이스가 많아 돌을 밟고 미끄러지는 등 꽤 위험한 상황도 연출되었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모두가 아이젠과 등산 스틱을 아무지게 챙겨와서 '장비빨'로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약 4시간 30분을 오르고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정상은 고도가 높아서 하루 대부분 안개가 끼어있다고 하는 데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나 보다. 백록담이 우리를 환영해 주듯 새하얗게 눈 덮인 자태를 뽐내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찹쌀떡 같았다. 노조창립기념일이라 평일에 정상을 밟을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사람도 많이 붐비지 않아 정상 석에서 인증을 하기 위한 줄도 비교적 짧았다. 백록담을 눈앞에 마주하니 올라오는 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강 모 사원은 백록담에 올라 기쁨에 겨워 눈물을 찼끔 흘렸다는 후문이다) 우리가 함께해냈다는 성취감에 무척 뿌듯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 등산 인구가 그토록 많은 것인가 싶기도 했다. 함께 축구했을 때, 팀워크가 좋아 패스가 잘되는 순간 기분이 매우 좋은데, 함께 등산하는 것 또한 그만큼 기쁨이 컸다.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정상에 함께 이르렀을 때는 마치 패스가 잘 되어 경기가 잘 풀리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했다. 먼 훗날에 한라산을 떠올리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정상에서 도시락을 까 먹으며 소감을 나누며 뿌듯해하던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누군가의 발은 안전하게

저개발국 아이를 위한 신발 꾸미기



한국전력기술 사보 <KEPCO E&C Family>에서는 매호 한국전력기술인들이 함께해서 더 즐겁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함께해요' 코너를 신설해 함께라서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을 사랑과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된 한국전력기술인이라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여정이 시작됐다.

글: 각 참여자 정리, 편집실 사진, 고인순
자료제공: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가난과 재난으로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

저개발국 아이들은 많은 것이 부족하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발이다. 가난과 재난으로 신발이 없어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형편이 되지 않아 신발 한 켤레 사지 못하고 도로 사정 또한 좋지 않지만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맨발로 오가며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인들이 나섰다.

예쁘게 꾸민 신발, 누가 신게 될까?

연말연시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이들에게 주변을 둘러보는 마음과 여유를 알려주기 위해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전력기술인들에게 키트(KIT)가 주어졌다.

키트에는 180~200mm 크기의 신발이 한 켤레씩 들어있다.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개성을 담아 예쁘게 꾸밀 아동화다. 여기에 네임펜, 스티커, 가죽끈 등 꾸밀 준비물도 담겼다. 크기만 다를 뿐 생김새며 준비물도 거의 비슷한 이 신발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는 순간이다.

이번 저개발국 아이들을 위한 신발 꾸미기는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를 통해 진행됐다. 따뜻한 하루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주는 NGO'로 국내외 모금과 다양한 후원을 하는 단체다. 여러 사업 중 '정글스토리'라는 캠페인 브랜드를 통해 '정글슈즈' 키트를 판매한다. 정글슈즈는 정글과 같은 환경에서 신발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신발을 꾸며 보내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키트를 구매한 이들이 신발을 꾸민 뒤 완성된 신발을 따뜻한 하루에 보내주면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신발에 담긴 사랑과 행복

정글슈즈 꾸미기에 참여한 한국전력기술인은 총 4명이지만 정글슈즈를 꾸미고, 꾸미는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된 이들의 수까지 더해지면 저개발국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이들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시너지 효과인 셈이다. 가족과 함께 꾸미며 추억을 남겼을 모습에서도 훈훈함이 느껴진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예쁘게 꾸민 한국전력기술인들의 소감도 궁금해진다.

신발을 꾸미면서 느낀 행복과 사랑이 정글슈즈를 받는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며, 꾸미기에 참여한 한국전력기술인이 전하는 당시 모습과 소감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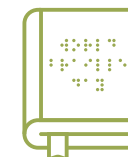
신발을 받는 나라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NEXT

다음엔 점자 촉각 단어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각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형견 점자촉각놀이교구재를 만들게 됩니다.

신청 마감 2월 14일

신청 방법 QR코드를 찍으시면 신청서 작성 온라인폼으로 이동합니다.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참고 사항 사내 임직원만 참여 가능, 바느질과 구멍 뚫기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청하기

예쁜 신발이 좋은 곳으로

“우리가 만든 신발이
맘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Q.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전력기술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재능나눔미 봉사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송하나 차장입니다. 이번 에 딸 다인리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Q.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저개발국 아이들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독자 참여가 있다고 들어서 선뜻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해 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Q. 꾸미기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평소에도 아이와 그림을 그리거나 클레이를 활용해 작은 소품 만들기를 자주 해서 그런지 신발 꾸미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신발이 없는 친구에게 선물한다고 설명해 주었더니 평소 아끼던 보석스티커도 선뜻 내어주더군요. 아이가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토끼 그림도 그리고 보석 스티커도 잔뜩 붙였습니다. 이 신발을 신게 되는 친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 신발 한 켤에는 ‘해피’라는 글자도 남겼지요.

Q.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신발이 없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신발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신발을 받는 아이에게 꼭 행복이 찾아갈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
첫 재능기부의 순간”



Q.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극도의 I형으로 사진에 담기지 못한 아빠와 저 그리고 사랑스런 첫째 딸 이시아, 둘째 딸 이시라를 소개합니다.

Q.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첫째 시아는 연필이라는 걸 손에 잡은 뒤로 항상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그만큼 무척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그런 시아가 재능기부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신발 꾸미는 것 또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Q. 꾸미기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신발을 받을 때 친구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신발을 꾸밀지 ‘작품 구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 눈도 오지 않고, 겨울도 없는 나라에서 사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느끼는 그 설렘이 신발을 받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또 전 세계 아이들에게 친숙한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와 미니마우스를 표현하게 되었답니다.

Q.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꾸미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능기부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네요.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어요”



Q.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원자력사업운영실 김동현 그리고 초등학생 딸 김하연 양입니다.

Q.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이에게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알게 되고, 또 나눔은 무엇인지, 타인에 대한 사랑에 대해 배울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참가했습니다. 실제 아이에게 작고 예쁜 정글슈즈 키트를 전달하며 봉사의 의미를 설명하니 딸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자기가 꾸민 신발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가 신고 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다고 하며 열심히 집중하며 만들더군요. 키트에 들어있던 재료 외에 자기가 아끼던 스티커도 붙여가며 정글슈즈를 만드는 딸아이의 모습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슈즈를 완성하고 나눔의 기쁨에 대해 얘기하며 저희 가족도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꾸미기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담은 ‘사랑의 슈즈’랍니다.

Q.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신발을 받을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소감을 대신합니다.)
안녕! 친구야, 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예쁘게 꾸민 신발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 나도 너를 생각하며 신발을 만들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Q.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개구쟁이 아들, 부끄러움이 많지만 춤추기를 좋아하는 유치원생 ‘댄싱 프린세스’인 딸이 신발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Q.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이들에게 신발 만들기를 제안하니 설명해 주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신발이 필요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만들기에 몰입해서 집에 있는 소품을 활용해 예쁜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번 참여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기쁨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Q. 꾸미기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들은 이 신발을 받게 될 친구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 곳곳에 한글과 KOREA 국가명을 적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도 알려주고 싶다며 그려 넣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유치원생 딸아이는 본인과 친한 친구들을 그리고, 신발 곳곳에 자기 어필을 해놓았습니다.

Q.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신발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켤레 존재하는 신발을 신게 될 친구를 위해 이렇게 의미 있는 신발을 만들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며 언젠가 꼭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컬 힙플레이스

우리
동네가

MZ 세대에게
전통시장은 놀이터며,
빵지순례를 떠나는 건
이제 일상이다.
이 모든 것을
레트로 감성으로만
해석하긴 부족하다.
MZ 세대가 느끼는
감성 '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글. 강태성 문화칼럼니스트

동네에서 채워지는 우리들의 라이프

팬데믹의 예기치 않았던 일상 멈춤이 우리의 눈을 '동네'로 돌리게 했다. 내가 살던 동네의 재발견은 '얼마나 편의성을 잘 갖추었는지'가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를 가리키는 '스세권', 슬리퍼를 신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에 큰 가치가 부여됐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얼마나 일상을 다채롭게 하는지' 또한 중요해졌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은 맛있는 빵집과 이색적인 디저트집이 집중되어 있어, '빵도동'으로 불린다. 실제로 서울 상도동에 있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카페 '부강탕 더플라잉팬'은 단순한 제과점 형태를 넘어 1973년에 건축된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큰 타격을 입자 베이커리 카페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변형시키며 '로컬'이 힙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됐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즐기러 로컬여행

엔데믹이 오자 아웃도어 라이프가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 로컬 문화를 즐기는 취향이 여행 트렌드와 결합한 것. 관광명소 탐방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과 연결

되면서 동시에 지역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는 '로컬 여행'이 뜨게 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2023-2025)에서 밝힌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관광객들의 1순위 여행 형태는 '자연경관 여행지 방문'(17.3%)를 제치고 '현지 투어를 통한 현지 문화 접하기'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양양 바닷가는 연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강원도 양양만의 서핑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왜 전통시장으로 향할까?

또 다른 한 축에서 이러한 고유의 로컬리티를 대표하는 곳 중 하나가 전통시장이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올해는, 서울 신중양시장(신당시장) 117%p, 강원 강릉중앙시장 70%p, 제주 동문시장 25%p, 서울 망원시장이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흔히 MZ 세대의 레트로 취향으로 풀어나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취를 갖고 있던 골목들, 을지로, 문래동, 성수동 등을 누비며 MZ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기에 충분하다. 스토리가 켜켜이

쌓인 골목길과 노포가 있는 공간인 전통시장에서 MZ세대는 원천(Origin)에 대한 관심으로 "여기는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아버지 세대가 즐겨 먹는 '근본' 맛집이 여기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힙동으로 불리며 급부상하는 서울 신당동에는 오래된 곡식 창고를 개조해 인테리어 하는 등 신당동 싸전거리(조선시대 곡식을 거래하던 시장) 역사를 녹여냈다. 대중적인 로컬힙플레이스가 된 광장시장, 경동시장은 MZ 세대의 일상에 참여하려는 대기업과 유명 프랜차이즈의 팝업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스타벅스는 '경동 1960점'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맥주는 광장시장에 팝업스토어 '제주위트시장바'를 문을 열었다. 이러한 힙한 공간이 뜨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예산시장은 재개장 이후 두 달 만에 48만여 명 방문과 함께 누적 총방문객 6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자신의 지역 자산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다만, 수십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해진 지금, 로컬의 힘은 새로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임은 분명한 것일 듯하다. **E&C**

E&C NEWS

‘ARC-100’ 상용화 공동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회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캐나다 원전 개발 기업인 ARC와 ‘ARC-100’ 상용화 공동 추진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ARC는 자체 개발한 소듐고속원자로 노형 ‘ARC-100’에 대해 지난 2019년 10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단계 사전적합성검토(VDR)를 완료했다. 이어 캐나다 포인트 르푸르의 부지 사용 허가를 신청한 ARC는 2027년 운영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회사는 ‘ARC-100’ 표준설계 및 인허가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최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장·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



회사는 지난해 12월 6일 ‘사장·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김천 본사에서 경영진과 부서장급 고위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사장과 상임감사 간 상호협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위직 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공동선언으로는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 △준수 의지 △효율적 운영 △전 직원 올바른 인식 공유 및 조직 구성원 역량 개발 △지속적인 개선점 모색을 통한 회사 경영 목표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감사실과 감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김천 본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마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식 국회의원, 김중권 경상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 박재석 경상북도 과학특보 등 정부정책·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에 따른 현실, 재건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고, 김한곤 혁신형 SMR 사업단장,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양희창 창원시 방산·원자력 특보, 변윤재 삼의공영 대표, 박원관 감사자문위원, 윤상일 상임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가스엔진 발전사업 EPC 계약 체결



회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0MW급 가스엔진 발전소 2개 사업의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주기기 구매 및 운송, 사업관리 지원 등 발전소 건설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인도네시아 건설사인 PT Adhi Karya가 보조기기 구매 및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총 사업비 1,240억 원이 투입돼, 2025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쉰바와(Sumbawa)와 토벨로(Tobelo) 지역 각각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생산에 들어간다.

회사는 이번 가스엔진발전사업 수주 성공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신규 발전설비의 수주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한림해상풍력 첫 호기 정격 출력(5.56MW) 발전 개시



회사가 EPC사로 참여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의 첫번째 풍력발전기(18호기 중 7호기)가 시운전을 무사히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최대출력 556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제주도 한림읍 해역에 5.56MW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여 국내 최대용량(100.08MW)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회사가 개발을 주도하고 인허가/설계/구매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첫 호기를 시작으로 이후 17기 풍력발전기를 순차적으로 발전하여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수행경험을 토대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에 부응하고 해상풍력 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천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응원



회사는 지난 12월 15일 김천복지재단에 간편식품 꾸러미 220박스(약 1,3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후원된 물품은 김천시 22개 읍면동으로 전달되어 저소득가구(220가구)에 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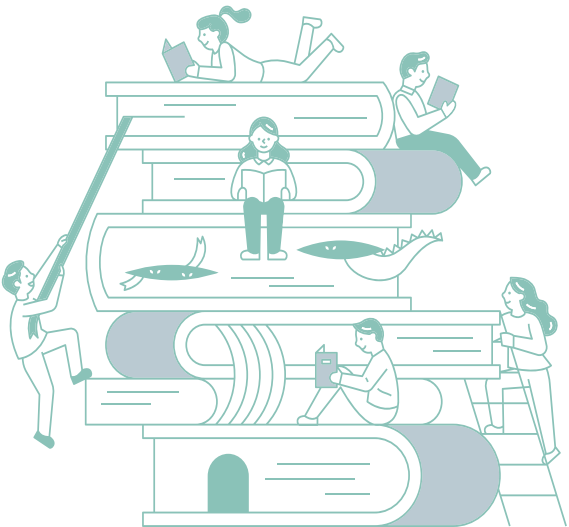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제13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과 연계해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추진하는 ‘원자력 산학연 지역상생 나눔마당’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자력 산학연 지역상생 나눔마당’ 행사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원자력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을 위한 나눔행사 등을 기획하여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독자참여 마감 2월 29일

QR을 스캔하시면 독자의견과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EPCO E&C Family>와 함께해요~



사보참여



QR을 스캔하시면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등 사보 참여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커피기프트콘
2만원권

조승현, 김동하, 이미정,
장민현, 강예숙

독자의견

사보를 보고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관심 어린 의견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Beer천가>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회사 업무 내에 능력이 많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업무 외의 영역에서까지 섭렵한 분들을 보니 동료들이 더욱 새로워 보입니다.

조승현(원자력기술실)

부서장님과 함께, 사원님들과 함께하는 신규 프로그램인 '같이 걸을 까'라는 좋은 사내 프로그램이 기획됐네요.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김동하(한전기술서비스)

부산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했던 장림포구, 새롭게 알게 돼서 고맙고 그리고 을숙도, 다대포해수욕장의 멋진 모습에 반갑고 정겨움이 느껴졌어요.

이미정(사외독자)

E&C 팻말을 찾으며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한 사보. 이젠 기사들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종종 아는 직원이 나오는 기사는 더 관심있게 보게 되네요. 다음 사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장민현(전기계측기술실)

이번 호에는 걸음걸음 동료애가 피어나는 산책을 하는 '같이걸을까' 코너가 기억에 남습니다. 구성원 간 이러한 시간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강예숙(사외독자)

읽을수록 흥미롭고, 참여하면 더 재밌는 <KEPCO E&C Family>

2024년 더 재밌고 풍성한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인의 다채로운 모습이
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동튀는독

2024년 트렌드를 테마로 한국전력 기술인만의 통통튀는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호 어떤 트렌드로 구성원을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클래스북

원데이클래스로 함께라서 더 즐거운 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적어 신청해 주세요.

마음고민 상담소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되는 순간의 명쾌한 전문가 답변을 전합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한기트레블러

나만 알고 싶을 만큼 좋은 여행지, 한국전력기술인에게만 공개합니다. 사진과 여행지 소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우리 동호회 어때?

우리 동호회 정말 좋은데 홍보할 방법이 없다면, <KEPCO E&C Family>에 출연해 주세요. 동호회 소개와 멋진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함께해요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말, '함께해요'에서 느껴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가족의 기록

일상 속 기념일이 되는 순간, 특별한 가족과의 추억을 프레임에 담아드립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신청해 주세요.

함하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없는 한국전력 기술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함하다'는 트렌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합니다.

사보 참여 방법

홍보팀 박다경 대리 054-421-3039 sky03tree@kepc0-enc.com